

# 금호타이어, 스포츠 마케팅 “으쓱”

## 세계 레이싱대회 공식타이어 지정 ... UHP 타이어 판매 초고속 행진

금호타이어(대표 신형인)가 8월8일부터 10일까지 네덜란드의 휴양도시 잔부트에서 열리는 말보로 마스터 F3 대회에 레이싱 타이어 <ECSTA> 1200본을 전량 공급한다.

말보로 대회는 F3대회 중 세계 최고권위의 대회로 하나의 공식타이어만을 사용하며 금호타이어는 2002년 세계적 메이커인 일본 브리지스톤을 제치고 공식타이어로 지정돼 참가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기업 중 국제적인 규모의 국제 F3 결정전에 공식타이어로 공급되는 것은 금호의 ECSTA가 유일하다”며 “말보로 대회 이외에도 F3 유로시리즈, 창원 F3 대회 등에도 공식타이어로 지정되는 등 세계 모터스포츠계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 말보로 마스터 F3대회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의 ECSTA



금호타이어는 지속적인 모터스포츠 투자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를 세계적으로 제고시킴에 따라 초고성능(UHP) 타이어의 판매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UHP(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 부문에서 2000년 170만본, 2001년 240만본, 2002년도 310만본이 판매되는 등 연평균 35%의 놀라운 매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3년에는 UHP 타이어 400만본 이상의 매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일반 타이어보다 월등한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코너링 기능이 보장된 UHP 타이어는 가격이 3-4배 정도 높아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최적의 마케팅전략이 모터스포츠라고 판단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펴온 결과, UHP 타이어 판매가 신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8>